



우상혁



무타즈 에사 바심

## “바심, 한 판 뛰자” ... “우~, 또 너냐?”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16일 만에 ‘현역 최고’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과 재대결한다.

세계육상연맹 로잔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3시 10분에 열린다.

체코 프라하에 ‘임시 캠프’를 차리고 훈련하던 우상혁은 24일 스위스 로잔에 도착했다.

우상혁과 현역 남자 높이뛰기 ‘빅2’를 형성한 바심도 로잔에 입성했다.

결전을 벌이기 전, 우상혁은 현지 어린이들과 만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우상혁은 24일 스위스 육상연맹이 준비한 ‘어린이를 위한 육상 교실’에 참여해 ‘일일 선생남’이 되고, 현지 어린이 팬을 위한 사인회도 열었다.

이제는 바심과의 결전을 준비한다.

### 세계 높이뛰기 ‘빅2’ 우상혁·바심 27일 스위스 로잔서 재대결 맞대결 성적 우상혁 기준 1승 3패 ... 당일 컨디션이 승패 좌우

세계육상연맹은 25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로잔 다이아몬드리그 높이뛰기 종목 프리뷰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바심이 2021년 도쿄올림픽 공동 금메달리스트 장마르코 탬베리(30·이탈리아),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 우상혁(2위),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3위)와 경쟁한다”고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상혁과 바심, 탬베리, 프로첸코, 주본 해리슨(23), 셸비 매튜언(26·이상 미국), 해매시 커(26·뉴질랜드), 장고 로벳(30·캐나다), 마테우시 프리빌코(30·독일) 등 9명이 출전한다.

세계육상연맹은 ‘4파전’을 예고했지만, 최근 기록과 현재 기량을 보면 로잔에서도 바심과 우상혁이 맞대결 구도를 그릴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에서는 ‘현역 최고’ 바심에 우상혁이 도전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7월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바심이 2m37을 넘어 2m35을 뚫고 우상혁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바심은 대회 3연패에 성공했고, 우상혁은 한국 육상에 사상 첫

실의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선물했다.

우상혁은 지난 11일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바심과 연장전 격인 ‘점프 오프’를 치르며 2위를 차지했다.

우상혁과 바심의 공식 기록은 2m30으로 같았지만, 점프 오프에서 바심이 이겼다.

우상혁이 바심을 이긴 적도 있다.

우상혁은 5월 14일 ‘바심의 홈’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2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2m33을 넘어 2m30을 뚫고 바심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바심 2m37로 공동 1위, 우상혁 2m35로 4위)을 포함해 우상혁과 바심의 맞대결 성적은 우상혁을 기준으로 1승 3패다.

여전히 바심은 ‘현역 최고 점퍼’ 위상을 지키고 있지만, 우상혁도 꾸준히 바심을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

## 3경기째 침묵 손흥민, 골 넣고 질주할까

### 29일 노팅엄과 EPL 4라운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개막 후 3경기째 골 침묵을 지킨 손흥민(30·토트넘)이 시즌 마수결이 골을 조준한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는 29일(이하 한국시간) 0시 30분 잉글랜드 노팅엄의 더시티그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리스트와 2022-2023시즌 EPL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개막 3경기에서 2승 1무(승점 7)로 무패를 달리며 순항하고 있다.

3연승을 거둔 아스널(승점 9)의 뒤를 이어 맨체스터 시티, 리즈 유나이티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이상 승점 7)과 상위권 경쟁을 벌인다.

‘승격팀’ 노팅엄과의 대결은 토트넘이 승점 3을 더하며 연승을 달릴 좋은 기회다.

올해 2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노팅엄은 리그에서 1승 1무 1패(승점 4)를 기록 중이다.

토트넘과 노팅엄이 EPL에서 만나는 건 1998-1999시즌 이후 처음이다. 두 팀이 마지막으로 마주한 건 2014-2015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3라운드 당시 토트넘이 3-1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아직 골이 없는 손흥민이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손흥민은 6일 사우샘프턴과 시즌 개막전에서 도움 1개를 기록해 팀의 4-1 완승에 기여했으나, 이후로는 공격 포인트가 없다.

토트넘의 불박이 공격진 중에선 손흥민만 골 맛을 보지 못했다.

데얀 콜루세브스키가 1라운드에서 한 골을 넣었고, 해리 케인은 최근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연달아 골을 터뜨렸다.

이제 손흥민의 차례다. ‘아시아인 최초 EPL 득점왕’의 발걸음은 무겁다.

지난 시즌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함께 23골을 넣어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은 올 시즌 다른 팀들의 ‘경계 대상 1호’다.

더욱 심해지는 경계를 뚫고 공격을 마무리 짓기



손흥민

가 쉽지 않다. 빠르게 활로를 찾는 일이 토트넘과 그의 숙제다.

득점은 없었지만, 손흥민은 울버햄프턴전(토트넘 1-0 승)에서 한 차례 골대를 맞추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가 영점을 제대로 잡고 득점포 가동을 시작한

다면 토트넘은 ‘천군만마’를 얻을 수 있다. 손흥민에 앞서 황희찬(26·울버햄프턴)도 시즌 첫 골에 도전한다.

울버햄프턴은 28일 오후 10시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EPL 4라운드 홈 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 수비로 MLB 홀린 김하성 ‘골든글러브’ 보인다

### 워싱턴전 호수비 이름 알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유격수로 자리매김한 김하성(27)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몸을 던진 수비로 미국 전체에 이름을 알렸다.

관중석에 들어가는 파울 타구를 몸을 던져 건져낸 장면은 구단 공식 유튜브에서 83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샌디에이고 구단 영상 가운데 조회수 1위다.

밥 밸런 샌디에이고 감독이 “김하성의 몸통이 두 동강 나는 줄 알았다”고 표현한 이 수비 하나로 김하성은 ‘전국구 유격수’가 됐다.

MLB닷컴은 3루수 매니 마차도가 “내 구역으로(수비하러) 오지 마”라고 농담했던 사실을 전하며 “마차도가 두 차례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것처럼, 김하성도 골든글러브의 자격이 있다”고 극찬했다.

포지션 베스트 플레이어 성격인 KBO리그의 골든글러브와 달리, MLB 골든글러브는 오로지 수

비 실력으로만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

유격수 자리에서 꾸준히 ‘하이라이트 필름’을 생산하는 김하성을 두고 현지에서는 이미 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MLB 골든글러브는 팀별 감독과 코치 1명씩 투표하고, 미국야구연구협회(SABR)에서 개발한 수비 통계 자료(SDI)를 25% 반영해 선별한다.

한국 선수 중에는 아직 한 명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다. 내야수로 범위를 좁히면 일본 선수조차 한 번도 상을 타지 못했다.

현재 여러 수치를 확인하면,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유격수 부문 유력한 수상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김하성은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수비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WAR) 1.7로 내셔널리그 유격수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다.

수비율은 0.986으로 리그 유격수 가운데 1위이며, 실책 역시 5개로 최소를 기록 중이다.

골든글러브 선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SDI 수치에서도 김하성은 7월 18일 경기까지 5.0으로 리그 유격수 3위였다. /연합뉴스

## 이란, 41년 만에 처음 프로축구리그에 여성 관중 입장

이란이 41년 만에 처음으로 자국 프로축구리그에서 여성 관중을 받는다.

dpa통신은 24일(현지시간) 현지 반관영 ISNA 통신을 인용, 이란 체육청소년부가 다음 날 예정된 자국 프로축구리그 경기에서 최대 수용 인원의 약 30%까지 일반 여성 관중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25일 1부리그 에스테그랄 테헤란과 메스 케르만 간 경기가 열리는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의 약 7만8000석 가운데 2만8000석 정도가 여성의 몫으로 배정된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사회로 바뀌어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을 금지했다.

이후 이란에서 여성이 축구경기장에 입장한 기

록이 1981년이 마지막이다.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입장 금지 정책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란은 2018년 10월 친선 경기에서 여성 200여 명을 입장하도록 했으나, 선수의 가족이나 고위 공직자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던 중 2019년 축구경기장을 몰래 들어가려다 체포된 이란 여성이 징역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원 앞에서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성의 축구경기장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가열됐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여성 관중을 받으라고 압박하자, 이란은 자국에서 열리는 일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경기에만 수천 명 규모로 여성 입장을 허용했다. /연합뉴스